

# 老母의 成人子女와의 結束度, 自我尊重感, 心理的損傷간의 因果模型\*

Study on Causal Relationships amo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Aged Mothers.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申 津 植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 Nam National University  
Prof: Hyo-shick Shin.

## 〈목 차〉

- |                     |             |
|---------------------|-------------|
| I. 緒論               | IV. 結果 및 解釋 |
| II. 理論的 背景 및 模型의 構成 | V. 結論 및 提言  |
| III. 研究方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s among related variables that determined psychological distress of aged mothers.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measure and subjects were 244 mothers aged over 60 and lived in K city. 221 answers were analyzed by SAS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pocketmoney and health had direct effects on objective solidarity, education level, pocketmoney and activity on subjective solidarity, marital status and health on psychological distress between exogenous variables and endogenous variables. Among endogenous variables, objective solidarity had direct effects on subjective solidarity and self-esteem, subjective solidarity on self-esteem, and self-esteem on psychological distress, respectively. Subjective solidarity was found to be most effectable variable on psychological distress.

\* 본 논문은 1994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I. 緒 論

전통적으로 血緣關係에 가치를 두는 가족구조에서 感情的 紐帶를 강조하는 가족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친족집단의 영향력 및 義務關係가 최소화 되어 점차 老父母들은 자녀들의 개인화된 가정생활영역의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즉 과거의 孝 또는 자식으로서의 成熟性(filial maturity)에 의한 扶養義務가 자녀에게 葛藤과 危機로 작용하는 한편 부모 역시 자녀에게 의존하는 役割의 逆轉(role reversal)의 상황은 심각한 心理的 障礙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壽命의 延長은 老人과 成人子女와의 關係期間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아직껏 이에 대한 關心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실정이다. 노년기의 父母-子女關係의 성격이 義務의인 것에서 自發의인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自發의인 父母子女關係의 유지의 可能性과, 維持의 要因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노후의 滿足이나 福祉에 미치는 影響도 불확실 하여 일종의 아노미 狀態로 표현되기도 한다(Hess & Wearing, 1978).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적·모성적 역할유형과 가족 지향적으로 사회화되어 온 어머니들은 높은 사별율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 노후 적용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더욱이 홀로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결속도가 낮고 인생만족도가 낮다고(조병은, 1990) 하였으므로 이러한 어머니들에 관한 심리적 적응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노후의 心理的 福祉狀態는 老年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喪失과 이러한 상실로 인한 自我尊重感의 低下와 관련하여 憂鬱을 경험하는 損傷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成人子女와의 結束의 緩衝役割을 보고한 여러 연구가 있다(Krause, 1987 a; Krause, Liang & Keith 1990; Lawrence, Bennett & Markides, 1992; Markides & Krause, 1985).

따라서 본 연구는 老母의 成人子女와의 結束을 통한 心理的 福祉 증진의 방안을 摸索하는데 基礎 資料를 제공하고자 老母의 심리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변인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因果關係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理論的 背景 및 模型의 構成

본 연구의 외생 변인으로 교육수준, 용돈, 배우자의 유무, 건강, 활동정도를 선정하였고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을 내생변인으로 간주하여 <그림 1>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구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1. 외생변인과 내생변인간의 관계

#### 1) 背景變因과 結束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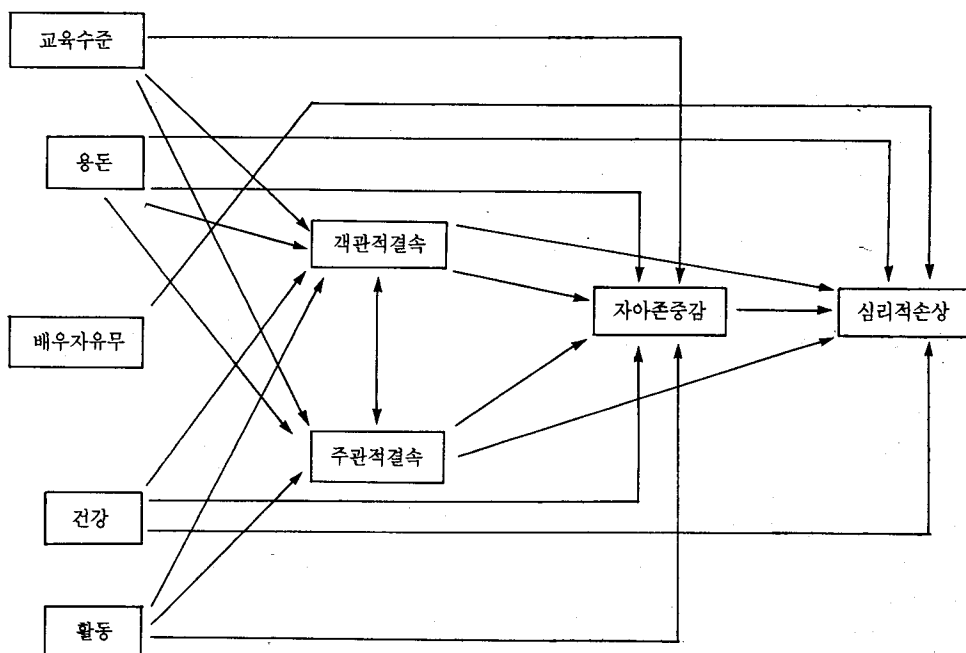
Durkeim은 결속이란 규범과 가치의 공유와 같은 구성원간의 상호교환성과 상호보완, 상호의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McChesney & Bengtson, 1988). 그 이후 시대적 변천을 거쳐 Bengtson 등이(1976) 구조적, 접촉적, 애정적, 가치관 일치, 기능적, 규범적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결속도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크게 양적측면과 질적인 측면 즉 객관적 결속과 주관적 결속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최정혜(1992)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수준은 결속도에 직접효과를 보였고 교육, 건강 그리고 활동은 간접효과를 갖는다고 하였고, 선행연구(신효식, 서병숙, 1992)에서도 결속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 용돈, 건강 그리고 활동, 종교유무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결속도의 相關變인으로 教育, 용돈, 健康, 活動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결속도의 하위영역인 主觀的 結束은 건강변인과의 관계를 假定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主觀的 結束은 심리적인 요인 이므로 건강이 主觀的 結束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客觀的 結束을 통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 2) 背景變因과 自我尊重感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로 자기 자신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정도이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며 개개인의 환



〈그림 1〉 가설적 인과모형

경에서 중요한 타인들- 부모, 교사, 친구들 -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Coopersmith, 1967). Rosenberg(1979)도 자아존중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Ward(1977)는 남자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은 교육이나 수입이며, 여자노인은 役割變化와 현재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隱退나 健康問題,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한 생활 및 역할 변화가 일어날 때 자기 이미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Bengtson, Ready & Gordon, 1985;578). 이러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은 교육, 용돈, 건강, 활동 등이 중요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配偶者 有無와 自我尊重感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노인의 自我概念이 일생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安定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影響에 덜 민감하다는 見解로 볼 때(송인섭,1988:164)

配偶者와의 死別은 대부분 노인기에 당면하는 생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사별이 즉각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 3) 背景變因과 心理的 損傷

심리적 손상이란 문제거리나 근심을 겪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 또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손상도가 높다는 것은 정신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여러가지 신체적, 사회적 상실로 인하여 좌절을 경험하고 우울증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의 측정은 우울척도가 주로 이용된다.

노인들의 憂鬱은 신체적 疾病과 상관이 높다고 하였으며(Markides & Krause, 1985; Rook, Thuras & Lewis, 1990), 死別, 經濟的 缺乏과 같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Krause, 1986). 한편 선행 연구(신효식, 서병숙, 1992)에서는 심리적 손상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 配偶者 有無, 健康, 活動, 아들

수, 의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활동변인은 건강변인과 상관의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탐색적인 과정에서 가능한 미지수를 줄이기 위하여 활동변인 역시 심리적 손상과의 관계를 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용돈, 배우자유무, 건강변인만을 선정하여 이들이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 보았다.

## 2. 內生變因들 간의 關係

본 연구에서 설정된 네 개의 내생변인들 간의 가설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客觀的 結束과 主觀的 結束

노부모-성인자녀 간의 빈번한接觸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반드시 정서적 친밀감이나 애정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Ward, 1978)가 있다. 또한 서병숙(1988)은 대다수 노인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로부터 同居扶養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녀와의 主觀的 紐帶는 부정적인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Leigh(1982)는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 애정적인 친밀은 상호작용의 양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愛情的 結束이 도움 주고받기를 유발한다는 견해(Roberts & Bengtson, 1990)가 있어 객관적 결속과 주관적 결속간의 因果的 關係의 方向을 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적인 인과방향을 설정하여 이들의 상호관계가 어떠한지를 탐색 하였다.

### 2) 客觀的 結束과 自我尊重感

Krause(1987b)는 노인의 社會的 支持에 의한 스트레스 緩衝假說(stress-buffering hypothesis)연구에서 노인에게 대한 경제적, 도구적 도움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여 정서적 장애를 감소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자녀와의 만남, 도움 주고받기 등을 포함하는 客觀的 結束이 自我尊重感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예측

할 수 있다.

### 3) 主觀的 結束과 自我尊重感

Thoits 등(1985)에 의하면 자신의 價値, 重要性, 能力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자신의 중요한 타인들에 의한 평가를 지각할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Krause, 1987b). 즉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으로부터의 尊重, 信賴, 愛情을 느낄 때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유지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자녀와의 主觀的 結束과 노부모의 自我尊重感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 4) 客觀的 結束과 心理的 損傷

社會的 支持가 憂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 (George, 1989; Krause, 1987c) 특히 가족간의 紐帶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Johnson & Bursk, 1979; Markides & Krause, 1985).

Sussman(1985)은 특히 接觸과 結束을 강조하여 結束의 知覺이 클수록 心理的 損傷이 적다고 하였다. 그러나 Markides & Krause(1985)는 客觀的 結束이 많을수록 憂鬱이 증가한다는 相反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客觀的 結束이 클수록 心理的 損傷이 적어진다고 보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 5) 主觀的 結束과 心理的 損傷

Markides & Krause(1985)는 愛情과 信賴등 主觀的 結束이 클수록 憂鬱이 감소한다고 하였고, Lawrence, Bennet & Markides(1992)는 가치의 유사성이 愛情的 結束에 영향을 미쳐 憂鬱을 減少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의 價値觀의 一致와 愛情的 結束이 부모의 心理的 損傷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 6) 自我尊重感과 心理的 損傷

노인들은 노화 과정에서 당면하는 身體的 喪失, 役割 喪失, 社會的 喪失, 心理的 喪失 등을 스스로 조

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자아존중감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憂鬱感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Bengtson, Reedy & Gordon, 1985). 이러한 결과에서 自我尊重感이 心理的 損傷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III. 研究方法

#### 1. 調査對象

조사대상은 k시의 농촌의 특성이 많은 1개 구를 제외한 3개 구에 거주하는 既婚子女를 둔 60세이상 여자老人 244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가정교육과 학생 15명이 면접하여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하고 22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調査道具

##### 1) 結束度 尺度

Bengtson & Schrader(1982)의 척도와 Mangel, Bengtson & Landry(1988)의 척도를 번안 수정하였다. 최정혜(1992)의 연구에서 構造的 結束과 規範的 結束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4개의 하위영역 총 25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상관도가 낮은 一致的 結束의 1문항을 제외한 총 2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자녀와의 결속은 전반적으로 자녀와 갖는 관계를 조사하였다.

① 接觸的 結束: 오락, 특별행사, 일상시의 접촉, 전화, 편지 등에 관한 5문항(Cronbach's  $\alpha = .65$ )

② 機能的 結束: 경제적, 신체적인 도움 주고 받기에 관한 8문항(Cronbach's  $\alpha = .52$ )

③ 一致的 結束: 자녀양육, 금전관리, 인생관의 일치정도에 관한 3문항(Cronbach's  $\alpha = .71$ )

④ 愛情的 結束: 이해, 신뢰, 존중, 사랑, 친밀감, 의사소통, 협조 등의 감정 상태에 관한 8문항

(Cronbach's  $\alpha = .93$ )

2) 自我尊重感 尺度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Rosenberg(1965)의 척도중 예비조사 결과 전체총점과 각 문항과의 상관계수에 의해  $p < .05$ 수준에서 8문항을 선정하였다. (Cronbach's  $\alpha = .88$ )

3) 心理的 損傷 尺度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중 身體的 症狀 5문항과 憂鬱感 5문항 총 10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 .90$ )

#### 3. 分析 方法

측정변인들의 平均, 標準偏差, 歪度, 尖도를 산출하였고 가설적 모형은 PC-LISREL VI를 이용하여 共變量 構造 分析으로 검증하였다.

### IV. 結果 및 解釋

#### 1. 測定 變因들의 記述 統計值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sup>1)</sup>, 첨도(kurtosis)<sup>2)</sup>는 <表 1>과 같다. 대부분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모수치 추정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測定 變因들의 要因 負荷量

내생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은 <表 2>와 같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생변인들의 측정변인들 중 최초 측정변인의 요인 부하량을 1로 고정시킬때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변인은 1보다 큰 값을 갖고 기여도가 낮은 변인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客觀的 結束의 경우 機能的 結束의 기여도가 낮은 편이며 主觀的 結束에 있어서는 愛情的 結束이 一致的 結束에 비해 상대적 寄與度가 높게 나타났고 心理的 損傷도 憂鬱이 身體的 症狀보다 상대적 寄與度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왜도 : 분포의 대칭성 또는 기울기 정도

2) 첨도 : 분포의 뾰족하게 솟은 정도

〈表 1〉 測定變因들의 平均 및 標準偏差, 歪度, 尖度 (n=221)

| 측 정 변 인 |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외 생 변 인 | 교육수준           | 3.24  | 3.76 | 0.95  | 0.41  |
|         | 용돈             | 5.00  | 2.88 | 0.65  | -0.81 |
|         | 배우자유무          | 1.30  | 0.46 | 0.86  | 1.27  |
|         | 건강             | 2.21  | 0.90 | 0.27  | 0.71  |
|         | 활동             | 3.28  | 1.41 | -0.07 | -1.44 |
| 내 생 변 인 | 객관적 결속(접촉적 결속) | 11.43 | 3.17 | 0.45  | 0.05  |
|         | 객관적 결속(기능적 결속) | 16.24 | 2.67 | -0.44 | -0.21 |
|         | 주관적 결속(일치적 결속) | 9.29  | 2.32 | -0.08 | -0.61 |
|         | 주관적 결속(애정적 결속) | 28.25 | 6.06 | -0.04 | -0.57 |
|         | 자아존중감          | 26.02 | 5.50 | -0.31 | 0.18  |
|         | 심리적 손상(신체적 증상) | 14.14 | 3.95 | 0.19  | -0.38 |
|         | 심리적 손상(우울감)    | 14.18 | 4.88 | 0.01  | -0.70 |

〈表 2〉 內生變因들의 要因 負荷量

|        | 객관적 결속 | 주관적 결속 | 자아존중감 | 심리적 손상 |
|--------|--------|--------|-------|--------|
| 접촉적 결속 | 1.000  | .000   | .000  | .000   |
| 기능적 결속 | .845   | .000   | .000  | .000   |
| 일치적 결속 | .000   | 1.000  | .000  | .000   |
| 애정적 결속 | .000   | 1.488  | .000  | .000   |
| 자아존중감  | .000   | .000   | 1.000 | .000   |
| 신체적 증상 | .000   | .000   | .000  | 1.000  |
| 우 울 감  | .000   | .000   | .000  | 1.069  |

3. 假說의 模型의 附合度 分析 및 構造行路

실증적 자료와 모형의 부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부합치, 조정 부합치 및 잔량을 산출하였다. 표본 크기가 200이상인 경우 GFI가 .90이상이면 모형에 큰 문제가 없고 .95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수 있다. 조정 부합치는 GFI를 자유도에 의해 수정한 것으로 GFI보다 작은 수치로 산출되며 잔량은 .05보다 작으면 이상적인 모형으로 간주된다(이 순목, 1990). 따라서 가설적 모형은 〈表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상적인 부합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구조행로는 〈表

4〉와 같다.

4. 模型의 修正

모형의 수정은 가설적 모형의 구조 행로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고정시켜 모델을 간명화한다. 1차적으로 주관적 결속→객관적 결속을 고정한 결과 객관적 결속→주관적 결속, 용돈→객관적 결속, 용돈→주관적 결속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총 9단계를 거쳐 모형을 수정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정에 따른 모형의 전반적 부합도는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修正模型의 構造 行路 分析

수정모형의 구조 행로 계수 및 구조행로는 〈表 6〉 및 〈그림 2〉와 같다.

배경변인과 내생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客觀的 結束에는 용돈과 健康이 관련변인으로 나타났고, 主觀的 結束에는 教育水準, 용돈, 活動이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다. 自我尊重感에는 有意한 關聯變因이 하나도 없었으며, 心理的 損傷에는 配偶者 有無와 健康이 관련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이 노모와 자녀간의 결속과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主觀的 結束은 어머니가 教育水準이 낮을 수록, 용돈이 많을 수록 주관적 결속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教育水準이 높은 어머니가 子女와 親密한 關係를 維持하지 못하고 對立的인 경향을 보이며 오히려 教育水準이 낮은 어머니가 子女들과 愛情的인 關係를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傳統的인 어머니의 犧牲과 奉仕의 의식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정을 받기보다는 애정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으로 어머니들의 教育水準이 높아지는 경향이므로 새로운 母-子女關係 類型과 이로 인한 葛藤의 증가가 豫測된다. 한편 어머니의 용돈 즉 經濟的 地位가 낮다는 것에 주목할 때 主觀的 結束의 沮害要素로

〈表 3〉 假說的模型과 修正模型의 전반적 지수

| 전반적 지수 | chi square | df | 유의도  | GFI  | AGFI | 잔량   | 결정계수 |
|--------|------------|----|------|------|------|------|------|
| 가설적 모형 | 33.86      | 29 | .244 | .975 | .934 | .032 | .340 |

〈表 4〉 假說的 模型의 構造 行路 係數

| 구 조 행 로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고정지수(t-값) |
|-------------|--------|-------|-----------|
| 주관적결속→객관적결속 | .312   | -.277 | -.505     |
| 객관적결속→주관적결속 | .494   | .556  | 1.546     |
| 객관적결속→자아존중감 | .364   | .276  | 2.636**   |
| 주관적결속→자아존중감 | .686   | .463  | 5.094***  |
| 객관적결속→심리적손상 | .158   | .141  | 1.460     |
| 주관적결속→심리적손상 | -.299  | -.237 | -2.787**  |
| 자아존중감→심리적손상 | -.428  | -.504 | -5.322*** |
| 교육수준→객관적결속  | .062   | .087  | .623      |
| 용돈→객관적결속    | .209   | .293  | 1.447     |
| 건강→객관적결속    | .163   | .229  | 2.332*    |
| 활동→객관적결속    | .073   | .102  | .591      |
| 교육수준→주관적결속  | -.170  | -.268 | -2.690**  |
| 용돈→주관적결속    | .130   | .205  | 1.870     |
| 활동→주관적결속    | .160   | .252  | 3.297**   |
| 교육수준→자아존중감  | .100   | .107  | 1.532     |
| 용돈→자아존중감    | -.045  | -.048 | -.695     |
| 건강→자아존중감    | .060   | .064  | 1.036     |
| 활동→자아존중감    | .087   | .093  | 1.441     |
| 용돈→심리적손상    | .045   | .056  | .899      |
| 배우자유무→심리적손상 | -.160  | -.200 | -3.439*** |
| 건강→심리적손상    | -.255  | -.319 | -5.143*** |

\* p < .05    \*\* : p < .01    \*\*\* : p < .001

작용할 可能性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社會經濟的 地位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들과 價値 一致를 느끼는 것이 부족하며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기 쉬우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의 友愛的 關係維持를 지향하는 미래의 老母-成人子女 關係에서 특히 社會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들에 대한 教育과 政策立案에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自我尊重感에서 유의한 關聯 變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것은 남자노인

의 自我尊重感 變인은 教育이나 收入이 중요하고 여자노인의 自我尊重感에는 役割變化와 活動에 영향을 받는다는 Ward(1977)의 결과에서 일부 설명이 될 수 있겠다. 즉 여자노인은 직접적인 배경변인보다는子女와의 結束이 남자노인에 비해 더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心理的 損傷의 關聯 背景變因으로는 配偶者 有無와 健康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rause(1986)가 死別로 인한 스트레스가 憂鬱의 原因이라고 한 지적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특히 여자노인의 死別率이

〈表 5〉修正 模型의 전반적 指數

| 고정행로            | chi square | df | 유의도  | GFI  | AGFI | 잔량   | 결정계수 |
|-----------------|------------|----|------|------|------|------|------|
| I 주관적결속→객관적결속   | 34.22      | 30 | .272 | .975 | .935 | .032 | .507 |
| II 활동→객관적결속     | 34.33      | 31 | .311 | .975 | .937 | .032 | .508 |
| III 용돈→자아존중감    | 34.82      | 32 | .335 | .975 | .938 | .033 | .504 |
| IV 용돈→심리적손상     | 35.73      | 33 | .342 | .974 | .938 | .034 | .502 |
| V 건강→자아존중감      | 36.77      | 34 | .342 | .973 | .938 | .035 | .507 |
| VI 교육수준→자아존중감   | 38.36      | 35 | .320 | .972 | .938 | .035 | .511 |
| VII 활동→자아존중감    | 41.91      | 36 | .230 | .970 | .934 | .037 | .506 |
| VIII 교육수준→객관적결속 | 45.65      | 37 | .156 | .967 | .931 | .042 | .481 |
| IX 객관적결속→심리적손상  | 48.64      | 38 | .116 | .965 | .927 | .045 | .448 |

〈表 6〉修正模型의 構造 行路 係數

| 구조행로        | 비표준화계수 | 표준화계수 | 고정지수(t-값) |
|-------------|--------|-------|-----------|
| 객관적결속→주관적결속 | .321   | .359  | 3.344***  |
| 객관적결속→자아존중감 | .428   | .321  | 3.251**   |
| 주관적결속→자아존중감 | .684   | .459  | 5.495***  |
| 주관적결속→심리적손상 | -.246  | -.198 | 2.423**   |
| 자아존중감→심리적손상 | -.378  | -.454 | 5.314***  |
| 용돈→객관적결속    | .183   | .259  | 3.085**   |
| 건강→객관적결속    | .174   | .246  | 2.977**   |
| 교육수준→주관적결속  | -.133  | -.210 | 2.948**   |
| 용돈→주관적결속    | .148   | .234  | 3.002**   |
| 활동→주관적결속    | .165   | .262  | 3.745***  |
| 배우자유무→심리적손상 | -.143  | -.183 | -3.125**  |
| 건강→심리적손상    | -.240  | -.306 | -5.032*** |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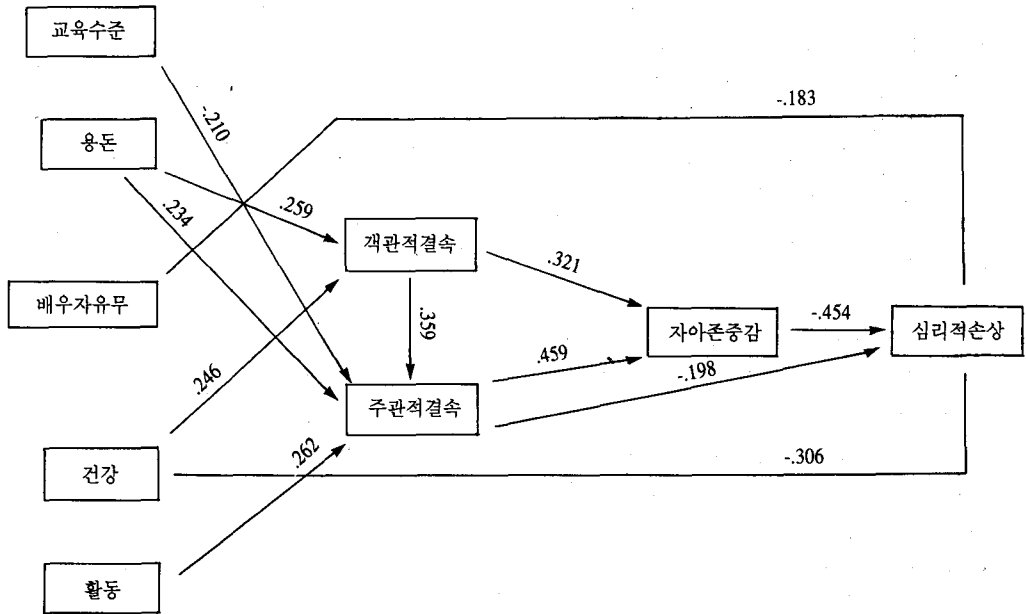
훨씬 높다는 사실로 볼 때 홀로된 女子老人의 心理的 損傷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내생변인들 간의 관계는 客觀的 結束이 主觀的 結束에 正的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客觀的 結束과 自我尊重感이 因果關係를 나타냈다. 이것은 Atkinson 등(1986)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도움 주고받기의 豫測因子이며 여성이 親族維持의 중심점이라는 결과로 볼 때 평상시 어머니는 모든 자녀와 빈번한 接觸을 하며 도움을 주고 받는 役割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主觀的 結束이 自我尊重感과 心理的 損傷에 직접적인 인과關係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손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가지 상실과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을 잃게 하고 심리적 손상을 초래하게 됨을 입증해 주고 있다.

변인들간의 전체효과를 통하여 내생변인과 외생변인들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알아보면 〈표 7〉 및 〈표 8〉과 같다. 심리적 손상에 대한 변인들의 전체효과





〈그림 2〉 수정모형의 구조행로

는 주관적 결속이 가장 크며, 자아존중감, 객관적 결속, 건강, 배우자의 유무, 용돈, 활동, 교육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7〉 內生變因에 대한 外生變因의 全體效果

| 내생변인 \ 외생변인 | 교육수준   | 용돈    | 배우자유무 | 건강    | 활동    |
|-------------|--------|-------|-------|-------|-------|
|             | 객관적 결속 |       | .183  |       | -.174 |
| 주관적 결속      | -.133  | .206  |       | -.056 | .165  |
| 자아존중감       | -.091  | .219  |       | -.112 | .113  |
| 심리적 손상      | .067   | -.134 | -.143 | -.296 | -.083 |

노부모의 心理的 福祉에 子女와의 質的 量的 相互作用이 重要하며 自我尊重感 역시 重要한 要因인데 老化過程에서 當面하는 社會的 身體的 喪失과 노인에 대한 社會의 否定的인 시각은 依存的으로 社會화된 노모들의 心理的 損傷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推論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특히 어머니들의 母子女와의 關係정립과 이에 대한 教育 및 政策에 반

〈表 8〉 內生變因에 대한 內生變因의 全體效果

|        | 객관적 결속 | 주관적 결속 | 자아존중감 |
|--------|--------|--------|-------|
| 객관적 결속 |        |        |       |
| 주관적 결속 | .321   |        |       |
| 자아존중감  | .648   | .684   |       |
| 심리적 손상 | -.324  | -.504  | -.378 |

영해야 할 基礎資料를 제공하는 데 的의가 있다.

### V. 結 論 및 提 言

가설적 모형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기초부합치가 .961, 조정부합치가 .922, 잔량이 .041이었으며 假說的 模型이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 결과 확인된 假說的 模型내의 因果關係는 다음과 같았다.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평가 할수록 용돈을 많이 쓰는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만남이나 도움 주고받기의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였고,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일수록, 용돈을 많이 쓸수록 교회나 노인당, 친구모임, 趣味活動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생활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와 가치관의 일치율을 더 많이 느끼고, 자녀로부터 愛情, 尊重, 信賴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身體的 症狀이나 憂鬱感이 낮게 나왔다.

내생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서는 자녀와의 만남이나 접촉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價値一致나 信賴, 尊重, 愛情 등의 主觀的 結束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客觀的 結束이 높을수록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의 접촉이나 도움 주고 받기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며 한편 어머니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는데 자녀와의 객관적 유대가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자녀와의 주관적 결속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어머니의 신체적 증상이나 우울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심리적 손상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를 파악해 본 결과 자녀와의 주관적 결속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結論을 토대로 老母의 子女와의 結束 및 자아존중감, 心理的 損傷에 대하여 提言을 해보면 어머니들은 노후를 홀로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자녀에 의존하여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심리적 손상의 정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여 자녀들과의 접촉과 도움 주고 받기를 적극적으로 하며,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변화하는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사활동에만 참여해 온 어머니들은 건강유지, 경제적 자립, 새로운 가치 수용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므로 이러한 어머니들에 대한 자녀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배려 및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본 연구는 탐색적인 시도의 성격을 지니므로 다른 변인을 추가하

거나 연구대상을 세분화하는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특히 여자노인은 사별율이 높고 교육 및 경제수준이 낮으며 건강 여부에 따라 자신의 가치인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가사활동 참여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가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특히 딸이나 며느리와 관계에서 애정, 또는 갈등적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서병숙.(1988). 老後適應에 관한 研究-生活満足度 및 家族의 交流度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2)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自我概念. 서울: 良書院.
- 3) 신효식, 서병숙(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이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2), 99-108
- 4) 이순복.(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星苑社.
- 5) 조병은.(1990).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 인생만족도. 韓國老年學, 10, 105-124.
- 6) 조병은.(1990). 한국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8(3), 5-26.
- 7) 최정혜.(1992). 老父母가 지각하는 成人子女와의 結束度 및 葛藤에 관한 연구. 誠信女子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8) Atkinson, M. P., K ivett, V. R. & Campbell, R. T.(1986).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An examin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1(3), 408-416.
- 9) Bengtston, V. L., Reedy, M. N. and Gorden, C. (1985). Aging and self - conceptions : Personality and social contexts. In J. E. Birren,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 544-593.
- 10) Bengtston, V. L and Schrader, S. S.(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J. Mangen and W. A.

- Peterson(Eds.). *Handbook of rease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15-185.
- 11)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12) George, L. K.(1989). Stress,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In K. S. Markides and C. L. Cooper(Eds.). *Aging, stress and health*, New-York, John willey & sons.
  - 13) Hess, B. B. and Waring, J. M.(1978). Parent and child in later life : Rethinking the relationship. In R. M. Lerner and G. B. Spanier(Eds.),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A life - span perspective*. New York : Academic Press.
  - 14) Johnson, E. S. & Bursk, B. J. (1979). Relationships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In G. K. Phelan(Ed.), *Family relationships*, Minneapolis : Burgess Publishing Co.
  - 15) Krause, N.(1986). Stress and sex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1(6), 727-731.
  - 16) Krause, N.(1987a). Chronic financial 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2), 185-192.
  - 17) Krause, N.(1987b).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 349-356.
  - 18) Krause, N.(1987c). Chronic strain, locus of control and distress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 375-382.
  - 19) Krause, N., Liang, J. and Keith, V.(1990).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later life. *Psychology and Aging*, 5(3), 315-326.
  - 20) Lawrence, R. H., Bennett, J. M. and Markides, K. K.(1992). Perceive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47(2), s55-65.
  - 21) Leigh, G. K.(1982). Kinship interaction over the family life spa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97-208
  - 22) Mangen, D. J., Bengtson, V. L. and Landry, P. H. Jr.(Eds.) (1988). *Measurement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23) Markides, K. S. and Krause, N.(1985).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among older Mexican Americans : A three - generation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3), 390-392.
  - 24) McChesney, K. Y.& Bengtson, V. .(1988). Solidarity, intergeneration and cohesion in families : Conception and theories. In D. J. Mangen, V. L. Bengtson, & P. H. Landry, Jr.(Eds.) *Measurement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25) Roberts, Robert, E. L. & Vern, L. Bangtson. (1990). I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 unidimensional construct? A second test of a form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5, s12-20.
  - 26) Rook, K. S., Thuras, P. D. & Lewis, M. A. (1990). Social control, health risk tak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5(3), 327-334.
  - 27)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Inc.
  - 28) Sussman, M. B.(1985).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In R.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2nd ed.)*,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415-444.
  - 29) Ward, R. A(1978). Limitations of the family as a supportive institution in the lives of the aged. *Family Coordinator*, 27, 365-373.